

장흥, 국립 전남호국원 유치 총력

김성 군수, 국가보훈처장 면담
적합성 강조·단체성명서 전달
TF 회의·주민 설명회 개최도

장흥군이 국립 전남호국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9일 장흥군에 따르면 김성 장흥군수가 ‘국립 전남호국원’ 유치를 위해 최근 국가보훈처를 방문했다.
이날 김 군수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만나 국립 전남호국원의 장흥 유치 적합성을 설명하고 보훈단체 성명서를 직접 전달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장흥군이 전남호국원 대상지로 확정될 경우 적극적인 협력으로 사업추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장흥군의 유치 의도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국립 ‘전남호국원’ 후보지에 대한 현장 방문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장흥군은 지난 2월 전남호국원 조성 유치를 위해 TF를 구성하고 2차례의 회의를 개최했



김성 장흥군수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만나 국립 전남호국원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다.
최종 용역보고회 개최 후 지난 24일에는 전남도에 국립 전남호국원 장흥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다.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장흥읍, 안양면 이장단, 장흥군 기관·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4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보훈·안보단체와 장흥군 사회단체협의회는

지지성명 발표로 호국원 유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에만 없는 호국원을 유치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전남호국원의 장흥군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이옥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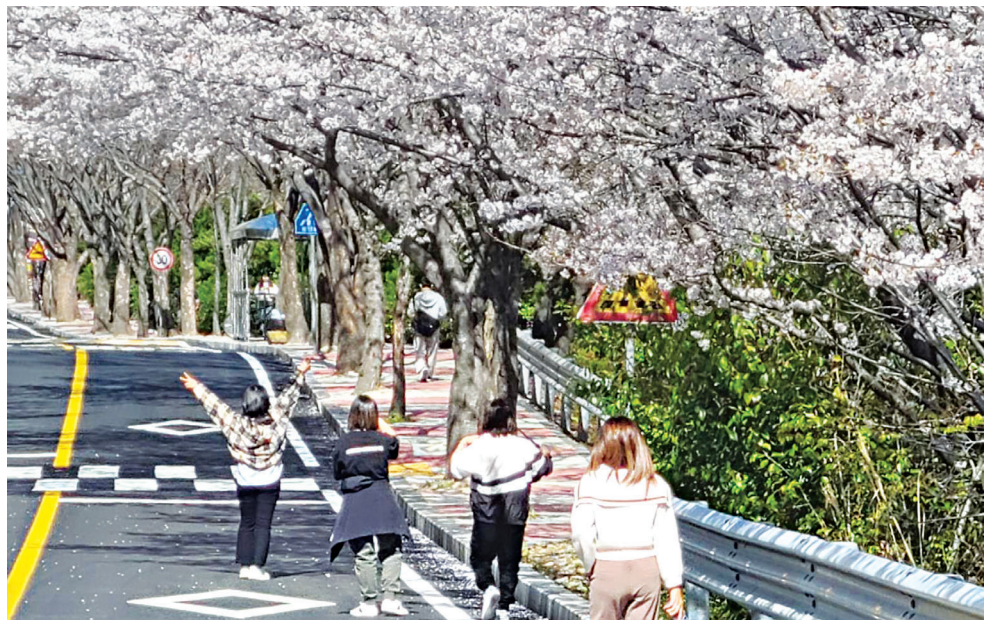
“전남대 여수캠퍼스로 ‘벚꽃소풍’ 오세요”

오늘 벚꽃 축제...선착순 선물도

전남대 여수캠퍼스가 재학생과 교직원, 지역민을 위한 벚꽃 이벤트를 개최한다.
전남대 여수캠퍼스는 오는 30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여수캠퍼스 소운동장에서 음악동아리 공연, 길거리 노래자랑 등을 곁들이면서 올해 여수에서 첫 벚꽃 축제인 ‘벚꽃소풍, 다시 돌아온 봄’을 개최한다.
4인이 팀을 이뤄 돗자리, 음료수 등을 가지고 행사장인 소운동장으로 오면 선착순으

로 50팀에 통닭도 선물한다.

전남대 여수캠퍼스 정문-인문사회과학관, 후문-대운동장 구간은 벚꽃이 터널을 이루고 있어 매년 봄이면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박복재 부총장은 “여수에서 가장 먼저 벚꽃이 만발하는 여수캠퍼스 교정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대학과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하겠다”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



학생들이 캠퍼스에 활짝 핀 벚꽃을 만끽하고 있다. /전남대 여수캠퍼스 제공

순천, 위원회 청년 비율 20% 의무제 시행

19~39세 대상...전국 최초

순천시는 4월부터 시정의 모든 분야에 청년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 비율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 위원회 위촉직위원의 20%를 청년으로 구성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순천시 청년은 19세부터 39세로 6만9,000명

이며, 전체 인구의 25.1%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미래를 책임질 청년의 시각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개선을 제안하도록 위원회에 청년 비율 20%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시 위원회 186개 중 청년위원 20% 이상인 위원회는 7개에 불과해 시는 2024년 하반기까지 청년위원 비율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74개까지 늘리고, 2026년까지 13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동상 2~3년인 위원 임기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청년위원 비율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다양한 분야에 청년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청년위원 위촉 비율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힘쓰고 있다”며 “여러 분야의 청년들이 시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 시정을 이끄는 동반자가 돼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청년정책과를 신설해 청년이 행복한 일류 순천을 위해 청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청년정책 추진에 힘쓰고 있다.
/순천=박경식 기자

곡성 건강증진센터 개소...본격 운영

곡성군이 최근 ‘곡성군 건강증진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29일 곡성군에 따르면 곡성군 건강증진센터는 인구의 고령화와 농촌 지역 특성에 따른 건강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됐다. 이에 따라 건강 증진 기능에 특화된 다양한 통합 건강증진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건강증진센터는 기존의 농업인재활센터 기능을 강화하며 1층은 농업인재활센터, 2층은 순환운동실, 프로그램실, 모바일 헬스케어실 등의 건강프로그램실로 조성됐다.
군은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 관리와 지원을 위해 보건의료원 내원으로 등록, 상담, 교육, 맞춤형 신체활동 및 개인별 건강상담, 재활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지난 2월부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 지역주민의 참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지역주민 요구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기초 자료를 구축했다.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주민 요구도를 반영해 건강증진센터 업무 필요도를 선정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자조모임과 임신부건강교실, 성인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 및 6인 1그룹 근력증진을 위한 순환운동, 노인 대상 농업인재활센터,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우선순위로 선택했다.
또한 간호사,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가들이 상시 배치돼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도울 방침이다. 전문가들이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건강관리와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고혈압, 당뇨 등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 및 건강식생활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생활요가, 밸런스 워킹, 건강보험공단 연계 백세운동교실 등 군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청장년층 건강관리 서비스가 있다.
/곡성=한정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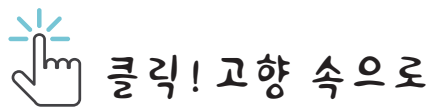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체험 프로그램비 지원

5세 이하 아동 1인당 5만원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비 지원사업’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 내 보육시설을 이용 중인 만 5세 이하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1인당 5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역 내 체험시설을 이용했을 때만 해당한다.
이 사업은 광양시 소재 체험시설에서 운영하

는 공예, 전통 체험, 체육활동 등을 통해 각종 오감 발달과 현장 교육이 동시에 이뤄져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광용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이사장은 “아이들의 사고발달을 성장시키는데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기회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광양시에 있는 다양한 자원 속에서 맘껏 뛰놀고 교감하며 아이들이 자라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



고흥 대서면-보성 조성면, 상호 고향기부

고흥군 대서면(면장 박정현)은 최근 고흥군 대서면 기관단체장협의회와 보성군 조성면 기관단체장협의회 상호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분위기 조성하고 교차기부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양 지역 기관단체장협의회는 이번 고향사랑기부금 교차 기부를 계기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2020년부터

중단됐던 지역 간 교류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번 교차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취지와 중요성을 공감하고 기부문화 확산 분위기를 이어 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는 두 기관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이뤄져 그 의미를 더했다.
/고흥=진중연 기자



여수 청정계장, ‘사랑의 밑반찬’ 후원

유한회사 청정계장이 최근 여수시 대교동에 200만 원 상당의 밑반찬 50상자를 후원했다.
이날 후원받은 반찬은 통장과 직원들이 저소득 독거노인 등 50가구를 직접 방문해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박현숙 청정계장 대표는 “추운 겨울을 잘 버티고 영양 가득 머금은 것과 파김치를 준비했다”면서 “어르신

들의 잃어버린 입맛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명호남 대교동장은 “홀로 어렵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반찬을 준비해 주신 박현숙 대표님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더불어 살기 좋은 대교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구례 지상마을, 박경현 의사 추모 행사

구례군 광의면 지상마을이 최근 마을 회관 앞에서 광의면 이장단 및 마을 주민 등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태극기마을을 조성 및 박경현 의사 추모 행사를 개최했다.
1919년 3월 23일 구례 장날 만세운동을 주도한 지상마을 출신 박경현 의사의 애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광의면 지상마을은 지난 2022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마을입구에서 회관 앞까지 약 150m에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했다. 올해는 같은 사업으로 봉성산 입구의 마을출신 박경현 의사 추모비를 마을로 이설하고 추모비 번역문과 마을유래 안내문을 설치했다.
/구례=손석봉 기자